

李息山이 南冥學派에 끼친 學問上 影響考

權 泰 乙*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理氣論展開 |
| II. 學風刷新 | V. 맺는말 |
| III. 士氣振作 | |
| 1. 德川書院 院長職遂行 | |
| 2. 先賢尊崇 | |

< 요 약 >

息山 李萬敷(1664~1732)는 18세기를 전후하여 활약한 선비로, 誠實·眞實을 바탕으로 한 實心の 완비를 주장한 實學者요 理氣論에도 自家說을 수립한 性理學者였다.

息山 당대의 嶺南 學風은, 영남 左道の 退溪學派와 右道の 南冥學派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성리학이 우세하였고 후자는 實踐儒學이 우세하였으나, 당쟁의 여파로 남명학파는 거의 괴란되다시피 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시기에, 퇴계학파의 선비였던 식산이 남명학파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德天書院(南冥奉安)의 원장직을 자신의 뜻에 따라 5년 간이나 수행한 것은 실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식산은 평소 학문을 위해서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녔고, 진리탐구에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진취적 사고를 지녔었다. 그러기에, 학문을 위한 학문에 충실하려 했던 식산의 생애는, 한 마디로 구도자의 길이었고 그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상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息山이, 영남 우도의 남명학과 선비들에 끼친 학문상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동을 중시하는 남명학과의 학풍을 쇄신시키기 위해 知와 行을 겸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둘째는, 남명학과 선비들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세 가지 일을 수행하였는데, 덕천서원 원장직의 수행과 영남우도 先賢들의 높은 덕을 찬양한 일, 자신의 理氣論으로 실천유학과 성리학이 하나임을 일깨우려 한 일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息山の 행위는, 학자의 양심·선비의 사명감에 충실하려 했던 높은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조선 유학사에서라도 그 類例가 드문 高行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Scholarly Influences of Sik-San Lee on
Nam-Myung School

Kweon, Tai-Eul

Sik-San Lee(1664-1732) was not only a Sung Confucianism scholar who constructed his own theory on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but also a scholar of practical science who emphasized integrity and truth.

At that time, the Young-Nam School was divided into Toe-Gue School on the left side, and Nam-Myung School on the right side. The former was superior in theory and the latter in practice. But the latter was almost destroyed as a result of party rivalry. It was very unusual that Sik-San Lee, a scholar of Toe-Gue School, took the position of principal of Deok-Cheon Lecture Hall, which was a symbol of Nam-Myung school. Lee thought that no parties existed in

the world of study. Therefore, his life was that of a seeker after truth.

The scholarly influences of Lee on Nam-Myung School are as follows;

First, he insisted that in order to transform the tradition of Nam-Myung school, which emphasized action, knowledge should be emphasized as well. Second, he performed three important actions to encourage the scholars of Nam-Myung school: performing his role as principal of Deok-Cheon Lecture Hall, praising the virtue of his predecessors at Nam-Myung school, and teaching that theory and practice are one.

Lee's actions resulted from his high spiritual wish to be faithful to scholarly conscience and duty. He was an unprecedented scholar of Confucian studies during the Yi dynasty.

I. 머리말

조선조 중기 이후 성리학이 극성하면서부터 유학은 실천유학과 성리학으로 구분되고, 성리학은 다시 主理·主氣派로 양분되어 당쟁의 도구화로서 타락하고 공론으로 치달아 끝내는 실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18세기를 전후한 학풍은, 실천유학은 형이하학으로 홀시되고 형이상학으로 여기던 성리학은 退栗學派로 구분된 데다 당쟁과 맞물려, 영남에서는 남인 중심의 主理論的 退溪學은 극성한데 반해 실각한 북인 중심의 실천유학적 南冥學은 일대 수난기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학풍 속에서, ‘退溪는 朱子 이후 제1인’¹⁾으로 숭봉했던 息山 李萬

1) 『息山先生文集』 권3, 《書》〈答上雪軒從大夫〉(6서), “朱子後 未有如退溪之純 所教當矣 此非吾東人阿好之言 足爲天下之公論也” 이하는 문집의 표기를 『文集』으로만 한다.

數(1664-1732)가 남인계 선비로서는 최초로 남명학파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德川書院 院長職을 수행한 사실은, 식산 개인의 연구로서만이 아니라 남명학연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논의의 편리를 위하여 식산의 학문적 생애를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²⁾

息山은, 당대 조선 굴지의 명문³⁾에서 태어났으며, 칠팔 세에 이미 “程朱學을 배워 道學을 창명하겠다”⁴⁾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家學으로는, 고조 華陰(李昌庭·觀察使)·증조 稼隱(李禱·大君師傅)·조부 荷谷(李觀徵·吏曹判書)·부 博泉(沃·禮曹參判)으로 이어지던 忠孝思想과 文學·禮學·書道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을 전수하였으며, 外家(芝峰 李暉光이 外高祖)로부터는 實學思想, 妻家(西厓 柳成龍이 再配柳氏의 증조)로부터는 經世哲學 등에 크게 영향을 입었다.

식산의 생애는 학문과 연계하여 4분할 수 있는데, 그 제1기는 博學爲主의 泛濫期(25세까지)·제2기는 洙泗學蘊蓄期(44세까지)·제3기는 自家說樹立期(57세까지)·제4기는 實踐躬行期(69세까지)가 그것이다. 식산은 제1기와 제2기의 33세까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선배로는 畿湖 淸南의 眉叟 許穆·白湖 李鑑·梅山 李夏鎭(星湖의 부친) 등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입었고 星湖 李瀾의 형들인 西山 李潛·玉洞 李澈 등과 는 지기로서 학문을 연마했다. 그러나, 식산은 서울이 학문할 곳이 못됨을 목도하였고,⁵⁾ 25세에는 <上庭下稟廢學書>를 올려 부친으로부터 과거포기의 허락을 받았다. 더구나, 제2기부터는 유학의 근원이 孔孟學에 있음을 깨달아 洙泗學에 침잠하게 되었으며,⁶⁾ 34세(1697)에는 嶺南 尙州 魯谷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2) 拙著, 『息山李萬數文集研究』, 五星出版社, 1990. pp.19-30 참조 및 『慕山學報』(제12집), <息山 李萬數의 선비精神考>, 모산학술연구소, 2000. 참조

3) 『연안이씨삼척공파보』 참조. 10촌 이내 문과급제가 19명(13명은 8촌 이내), 소과급제자 47명(28명은 8촌 이내), 관계진출 56명(33명은 8촌 이내), 3품 이상은 14명임.

4) 『文集附錄上』, 《行狀》, 문중 장로의 장래 희망 질문에 답함.

5) 부친 博泉은 노론과의 예송으로 1678년 선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주·가산·안녕·회령·갑산·곡성 등지로 12년 간의 유배 끝에 1689년(기사환국·남인특세)에 방면됨을 보고, 환로에 염증을 느낌.

6) 『文集』 권7, 《序》, <四書講目序> 참조. 大學 3년, 論語孟子 8년, 中庸 3년을 읽되, 아프거나 유고가 없으면 쉬 적이 없다고 슬회함.

“대개, 영남은 옛부터 君子의 지방이요 禮俗鄉으로 일컬어져 왔다. 上洛(상주 고포)는 그 상류에 처하여 가장 드러난 곳인데, 옛 우리 증왕고 찬 성공께서 北亂(주·병자호란)을 피하여 이 땅에 덕을 감추고 또 10여 년을 사셨으며, 왕고와 선자께서도 우거하셨다. 上洛은 우리 李氏에게는 옛 고향과 같은 곳이라 나 또한 살 만한 곳이었다.”⁷⁾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개, 영남의 풍속이 타락하여 거의 사라진 것을 알겠다. 世道가 쇠미해져 우리들 落落(뜻을 잃음)함을 弟로서는 이미 할 말이 없다”⁸⁾라고, 李濼에게 하소연하였는데, 학문상에는 당색을 초월⁹⁾하였고, 스승에게도 양보 못할 일이 있다¹⁰⁾는, 학자적 양심을 굽히지 않은 까닭에 食산의 상주 이주는 흠사 설을 지고 불로 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40세에 <天道有敬說>을 입론하는 과정에서 葛庵 李玄逸의 문도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¹¹⁾ 45세에 『道東編』을 저술하고는 密庵 李裁를 비롯한 그의 일부 문도들로부터는 거의 이단시되어, 공격이 심각하였다.¹²⁾ 더구나, 50대를 진후하여 退栗의 理氣說을 극복하려는 뜻에서 理氣說에 自家說을 수립한 뒤로는 완전히 敎化 밖의 인물로 취급되어 영남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691년(28세) 再配 豊山柳氏를 맞고 처가인 상주 柴里(修

7) 『別集』 권1, 《陋巷錄》, 《魯谷記》 참조

8) 『文集』 권8, 《書》, 《答李澄叔》(8書) 참조

9) 食산은, 남인계 기호파나 영남학과 선비와는 물론, 노론의 權尙夏 제자들인 成晩徵·成爾鴻, 소론의 李衡祥을 비롯한 朴世堂의 손자인 朴弼基, 그 외 소론인 李世弼·李台佐·李光佐·趙顯命 등과도 깊이 교류하였다.

10) 『文集』 권8, 《書》, 《答申景楷》(2서), 참조 “늘 진실을 밝힘에는 스승에게 양보해 약한다는 뜻이 있어서 이 때문에 그 기상을 거두워 끝내는 게으름에 빠지고 정신이 해이해져 말초에는 시골 풍속의 확(臼·구덩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니 어찌 애석치 않으랴”라고, 함

11) 이 설은 동양 최초의 설로, 종래 ‘天道有誠’과 ‘人道有敬’으로 이원화된 설을 일원화시킨 설이다. 이 설이 나오자 조정으로부터 사우간에 비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葛庵조차도 처음은 그러다고 하였다가 1703년 息山이 그를 방문하여 자신의 설이 옳음을 인정받았다.(『文集』 권6, 《書》, 《答申文甫》(5書) 참조) 침기할 일은, 葛庵은 大儒로서 후배의 正論을 기꺼이 인정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息山의 <陋巷錄>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문도들의 태도는 달랐다.

12) 특히, 密庵이 栗谷說(서인의 설)을 제거하라 하였고, 食산은 “그 취사야 다만 독자를 기다려도 해로울 게 없다”(『文集』 권5, 《書》, 《答李幼材》(3서)라고, 거절하였다.

巖宗宅)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꿈에 한 곳에 이르러 高樓에 오르니, 앞은 大江에 임하였고 풍우가 소소하게 내려 초창히 오래 있다가 절구시를 읊는데 깨어서도 내력은 다 기억할 수 있었으나 詩意를 알지 못하여 한 폭의 시를 써 둔다”는 소서를 달고, <夢作>¹³⁾시를 남기었는데,

靜對康城雨 조용히 康城 비를 대하고선
閒聽福嶺風 한가히 福嶺 바람소리를 듣네
風雨何時歇 비 바람 어느 때나 그치려는가
萬古此心同 만고에 이 마음은 한결같은데

라고 읊고, 康城과 福嶺이 어느 곳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시는, 석산이 당대 영남에서 겪었던 학문상의 험로를 예시한 詩讖같기도 하다. 1722년(59세) 상주의 선비 黃翼再(黃喜의 후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대개, 영남의 사대부가 근저로 삼는 바나 그들 논의의 경중이 다 上游(주·안동지칭)에서 주장한 것이라 이로써, 때를 만난 무리들이 나를 教化 밖의 사람으로 여겨 의심하고 거림이 날로 심해진다. 하물며, 商顏(상주)에 우거하는 자로 다 명가의 자제 아님이 없는데도, 장래 파란이 일어 부평초같이 떠돌자 또한 적지 않으리라. 黨은 드디어 괴란되고 또 점점 下鄉의 풍습을 밟게 되리니,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남모를 근심이 도도하다. 전년(주·1721)에 金陵으로 옮겼던 것도 대개, 뜻 없는 일은 아니었다. 바로 먹고 살기만을 꾀해서는 아니었다. 아, 천한 필부가 늙어 쓸모 없게 됨이 극에 달했도다. 세상과 교섭치 않은 지 사십 년. 그러나, 世祿의 후예로 충성심이야, 감히 인끈을 늘어뜨린 고관대작배에 뒤지지는 않지만, 오래토록 죽지 아니 하여 심장이 놀라고 혼백이 떨리는 말이 날로 귀에 들리니 유유한 창천이여, 이 어느 때문가! 한낱, 심산의 한 농부가 되어 세상을 마치고 이름을 숨기려 한 까닭이 어찌 즐거워서 었겠는가? 부득이 한 일이었을 뿐이다.¹⁴⁾”라고, 하였던 것이다. 선비답게, 학자답게 살려 한 생애가 환로에서보다 더 험난했으니, 당대 영남 좌도(左道)¹⁵⁾의 학풍을 가

13) 『文集』 권1. 《詩》 참조.

14) 『文集』 권8, 《書》〈答黃翼再〉(3書), “蓋嶺爲士大夫所根柢而其論議輕重 又自上游主之 以此時輩 以化外處之 疑忌日深 況商顏流寓 俱非無名家子弟 而將來波奔湍流者 亦應不少 黨遂壤亂 又漸墮下鄉之習 大觀小觀 隱憂切切 前年金陵之遷蓋不無意焉 非直爲口服計也 嗟呼 賤弊一匹夫 老朽已極 不與世交涉四十年 然自以世祿之後 漆室葵藿之誠 不敢後於紆青拖紫之輩 久而不死 警心悸魄之言 日入於耳 悠悠蒼天此何時也 所以只願作深山一農 以沒世而無所名也 夫豈所樂哉 不得已也”

히 집작할 수 있다 하겠다. ‘심장이 놀라고 혼백이 떨리는 말’은 바로 배를 갈아앓힌다는 ‘沈舟說’이었다. 이같은 격랑 속에서도 息山이 어떻게 버티어 갔던가를 연대별로 몇 사실만 요약하기로 한다.

- 1664년, 명문에서 태어남. 기호학과 청남계의 중추적 집안임.
- 1697년(34세); 늦가을, 영남 상주 노곡으로 이주함.
- 1703년(40세); ‘天道有敬說’ 입론으로 영남 남인계 일부 선비들의 질시를 받음.
- 1706년(43세); 영의정 崔錫鼎(소론)에 의해 學薦됨.
- 1708년(45세); 『道東編』에 율곡설(서인)을 수용하여 퇴계학과 일부 선비들이 이단시 함.
- 1710년(47세); 학문상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여 閔慶 華陰山 靑華洞으로 이주하여 저술에 전념함.
- 1712년(49세); 11월 17일 상주 노곡으로 환가함.
- 1713년(50세); 50세 이후는 理氣說自家樹立으로 퇴계학과 일부 선비(密庵)를 비롯한 그의 문도들)들로부터 ‘沈舟’시키겠다는 위협까지 받음.
- 1721년(58세); 분쟁을 피하여 늦봄에 金陵 蟾蜂(香洞)으로 이주 함.
- 1721년(58세); 德川書院 院長이 되어 10월 25일 알묘함.
- 1722년(59세); 尙州 北郭으로 환가함.
- 1724년(61세); 4월에 덕천서원 원장으로 알묘함.
- 1725년(62세); 덕천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덕유산을 유람함.
- 1729년(66세); 戊申倡義 表著者로 좌의정 李台佐(소론)가 천거하여 빙제 별고(6품)가 제수 되었으나 불취함.
- 1731년(65세); 경상감사 趙顯命(소론)과 관립 교육기관인 樂育齋를 중설 함.
- 1732년(69세); 초가을, <書退陶先生言行通錄後>를 지음. 12월 18일, 北郭 升室에서 영면 함.

15) 左道란 경북 상주·안동 등지를 지칭하는 말로, 右道란 경남 진주 지방을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上道·下道 등의 용어가 있으나 左右道로 통일함.

이 약력만으로도, 星湖 李瀼이 息山의 <行狀>에서, “處士로 完名하였고 吾學의 宗匠”¹⁶⁾이었다고 공안한 말이 지나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식산이, 그의 제4기에 해당하는 實踐躬行期에 5년 간이나 南冥學派의 표상으로서 德川書院 院長職을 수행한 것도 左道 선비들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반대급부적인 단순한 감정에서가 아님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江右 48家が 마치 서리맞은 秋草처럼 쇠퇴”¹⁷⁾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선비정신 탓이었다고 미리 말할 수 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功澤이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教化가 諸俗의 모범이 될 수 없다면, 곧 물러나 성현의 글을 읽어 그 義理의 바름을 깊이 맛보고 그 禮法의 큼을 궁구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간혹 동지와 토론하고 강마하며 혹 글을 써서 자신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후대인을 기다려 선비의 책임을 다 하게 한다면 거의 어긋남은 없을 것이다. 만약, 거친 옷·거친 밥이나 모자라고 간난 궁핍한 것이야 부끄러울 바가 아니다.”¹⁸⁾

이는 식산의 선비관이다. 實踐儒學이 배제된 性理學은 空論일 뿐이기에 그는 洙泗學을 유학의 근본으로 인식하였고, 時運이 불리하여 실천유학자의 표본이랄 수 있는 南冥의 학문 내지 학파의 침체된 학풍을 興起시킴에 일조하는 일이 선비가 공택을 내림이요 교화를 펴는 일이라 믿었기에 德川書院의 원장직을 5년 간이나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제, 息山이 남명학파에 끼친 영향을 학문상에서 그 몇 가지 점만 살피기로 한다.

II. 學風刷新

식산은, 퇴계학과 남명학을 학문의 표리(知行) 관계로 파악하여, 보다 知

16) 『文集附錄上』, <行狀>(李瀼撰)

17) 『南冥學研究論叢』 1집, 《南冥學叢書第一輯序》, 남명학연구원, 1998

18) 『文集』 권11, 《雜著》, <士>, “士生世間 功澤不能及於人 教化不能範諸俗 即可以退而讀聖賢書 咀嚼其義理之正 究觀其禮法之大 以說其心正其身 問與同志討論講磨 或筆之於書 以見其志 以待後人 爲士之責 庶幾不負 若惡衣惡食 窮約困頓 非所恥也”

先을 위주로 하는 퇴계학 못잖게 行重을 중시한 남명학 내지 남명학파의 학문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었다. 식산 당대는 탁상공리나 일삼는 성리학자들의 폐단이 실행을 중시하는 실천유학자들보다 심하였는데도 성리학자들이 학계에서는 우위에 있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知와 行 모두에 實心實學¹⁹⁾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식산의 實心實學은 李濟卿²⁰⁾에게 준 務實之戒에 잘 나타나는데,

“지금 어떤이가 있어, 그 말은 마치 道를 아는 것 같고, 그 행동은 군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實心이 없으면 거짓(허위)이다. 거짓을 좇아 거짓을 본받으려 하는 거짓으로써 속임이요 거짓으로써 거짓을 추종함이라, 거짓을 도와 거짓을 점점 불어나게 한다. 말이 과장되고 행위가 교만하며 움직여도 조급하고 조용해도 치달으며, 낮으면서도 높은 것이나 엿보고 천근하면서도 고원한 것이나 훑쳐 보는 것, 이것들이 다 實의 병통으로 심한 것들이다. 實에 힘써야 하니, 하늘도 實(心)이 있어 하늘이 되고, 땅도 實이 있어 땅이 되며, 사람도 實이 있어 사람이 되니, 가히 경계치 않으랴!”²¹⁾

라고 하였는데, 實은 곧 僞가 아닌 眞이요 誠이며 이를 지닌 마음이 곧 實心인 것이다. 이런 實心으로써, “모름지기 善을 향한 일념으로 잊지도 게으르지도 아니하여 日用事에 그대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학문의 근본을 삼으면, 바로 이것이 實學이다”²²⁾하였으며, “實心이 없으면 實事도 없다”²³⁾고 단언하였다. 이제, 식산의 실심실학이 남명학파 선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退溪와 南明의 出處觀을 대비하여 두 분의 선비적 자세를 살펴기로

19) 拙著, 『息山 李萬數文學研究』 pp.62-64. 참조.

20) 李濟卿은 字인 것 같고, 右道의 선비로 추정됨.

21) 『文集』 권11, 《雜著》, <務實之戒贈李濟卿> “今有人焉 其言若知道 其行若君子 然無實心則僞也 從僞而效僞則是以僞誣 以僞趨僞 資僞 僞轉增也 言誇行矜 動燥靜馳 卑窺高 近睹遠 皆實之病甚矣 實之宜務也 天有實爲天者 地有實爲地者 人有實爲人者 可不戒哉”

22) 『文集』 권9, 《書》, <答河聖則>(3書), “須於何善一念 不忘不懶於日用 以修子職 作爲學之本 方是實學也”

23) 李萬數, 『志書』 권6, <述言中篇>, “無實心則無實事”

한다.

退溪; “이른바 다하지 못한 일이란, 학문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도 자 처하기는 지나치게 높아 때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경영하는데 용맹한 것을 이름이니, 이는 실패를 취하는 길이요 큰 이름들 등에 업고 큰 일을 맡은 사람이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南冥; “대장부의 행동은 무겁기가 산악과 같고 마음가짐은 만 길 절벽이 우뚝 솟은 듯 해야 하며, 때가 이르면 허리를 펴고 비로소 허다한 사업을 이루어 낸다. 비유하면, 천 균(1균은 삼 천 균)의 돌로 만든 활을 한 번 쏘면 능히 만 겹의 견고한 성벽을 부술 수 있으나, 본래 다람쥐를 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²⁴⁾

두 분의 선비적 기상이 다르다. 퇴계는 보다 知先에, 남명은 보다 行重에 역점을 둔 자세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자세는 각 과간의 학풍이 되었는데,

“子新(주·李灑의 字)이 이어 묻기를, ‘영남은 평소 예측향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선배의 유풍을 지금도 가히 징험할 것이 있는가?’하여 말(식산)하기를, ‘上游(左道)의 풍습은 謙下(겸손하여 자기를 낮춤)하고, 下道(右道)의 풍습은 激峻(과격 준엄) 하니, 이는 선배가 이끌어 그리 된 것이다. 오 늘로써 말하면, 謙下는 流連(머뭇거림)하여 정신력이 점점 쇠미해 지고, 激峻함은 지나쳐서 남을 능멸하고 躡等(등급을 뛰어 넘음)하니 이른바, 恭遜한데도 예절이 없어 수고롭게 보이거나 勇猛한데도 예절이 없어 난폭해지는 것과 같다 하겠다’ 하니 子新이, ‘공손한 폐단은 오히려 작고 용맹한 폐단이 더욱 크다. 그러나, 진취함에 있어선 즉 용맹한 폐단이 때로는 낫잖을까?’ 하기에 나도, ‘그렇다’라고, 하였다.”²⁵⁾

라고, 退冥의 유풍이 말폐에 이르렀음을 밝힌 문답이다. 謙下와 激峻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 實心이라 할 수 있는 禮가 결여되면 하나는 진취성이

24) 李萬敷, 『道東編』 권11, 《學二》, <出處>, “其所謂未盡者 無他學未至而自處太高不度時而勇於經世 此其取敗之道 而負大名當大事者之切戒也”(퇴계) “丈夫動止重如山岳 壁立萬仞時至而伸 方做出許多事業 譬之 千鈞之弩 一發能碎萬重堅壁 固不爲蹠發也”(남명)

25) 『文集』 권12, 《雜著》, <鶴城問答>, “子新仍問嶺南素以禮俗稱 先輩遺風 今有可徵者乎 曰上流之俗謙下 下道之風激峻 先輩所以導之者然也 以今言之 謙下 流而爲頽靡 激峻 過而爲凌躡 所謂恭而無禮 勇而無禮者也 曰恭之弊猶小 勇之弊尤大 然與之進趣 則勇而弊者 有時勝乎 曰然”.

없어지고 하나는 지나치게 되어 '過不及'의 병통이 생기게 되니, 한 마디로 식산 당대에는 이미 영남의 학풍이 괴란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문답이다. 또한, 끝의 말은, 유자의 본질을 잃고 공리공론만 일삼는 행위야말로 과격한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비의 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때로 激峻한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息山이나 星湖가 공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의 문답은, 앞서 退冥의 出處觀과 직결되는 것으로, 식산 당대에 영남 좌우도 선비들 간에 쟁점화 되었던 '知行'의 선후·경중론과도 직결되는 문제점이었다. 息山은 晉州의 큰 선비였던 河應瑞²⁶⁾와는 1717년(54세) 이전부터 서신으로 서사와 학문을 논하고 있었는데, 식산은 여러번 그에게 진주의 학풍쇄신을 촉구한 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남명선생이 퇴계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새 학자는 몸소 일상의 예절(灑掃之節)도 지니지 못하고서,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한다' 하였으니, 이는 실로 학자의 병을 깊이 맞춘 것이라, 근래에 체험하니 더욱 친절한 말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또, 일종의 사람이 스스로는 特立獨行(독자적인 의견과 지조로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 함)한다는 생각으로 전혀 講學(학문연구)은 않는 이가 있다면 이 또한 심히 편벽된 것이라, 이에도 그 온당함을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아지 못할래라, 어찌 생각할지. 귀향의 후진들은 志氣가 특수하여 용기를 잃어 나태하지 않아 가히 학문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독 그들과 더불어 이끌어 나아가게 하고 격려할 사람이 없어 헛대이 귀한 시간만 버리게 하니 심히 애석한 일이다. 應瑞가 어찌 저들을 격려하여 바른 길로 들게 하지 않는가? 어디서 큰 불무를 얻어 일세에 뛰어난 英才를 點化(敎化)하여 우리 儒道로 하여금 太孤(지극히 외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²⁷⁾고 하였다. 이 말은 南冥의 '行重' 사상이

26) 李正大 발행, 『晉州鄉校誌』, 한림인쇄사, 1997. "河世應의 자는 應瑞요 호는 知命堂이다. 松亭 河受一의 손자로 1699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경전을 바탕으로 한 문장이 뛰어나 靑泉 申維翰도 극찬하였다. 息山 李萬敷 訥菴 李光庭과 더불어 도의교 하였으며, 은덕하였으나 후진양성에 성취가 많았다. 문집이 있다." 첨기할 일은, 河世應의 諱가 大應(식산집 권 5書)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권18의 <書河上舍應瑞樂天知命說後>로 보아도 知命堂이 곧 河世應(大應)임이 틀림없다.

당세(식산 당대)에는 더욱 절실한 교훈임에는 틀림 없으나, 쌓은 것이 없으면서 特立獨行하려는 志氣만 숭상하는 일 또한 병폐라고 경계한 말이다. 이는 또, 退冥의 말이 다 맞다는, 중간자적 입장의 중용 태도가 아니라, 儒學 내지 儒學者의 본질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退冥 그 어느 한쪽을 褒貶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말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英才를 구하고, 쇠미해지는 儒道를 보호하려는 선비의 충정이요 앞을 내다 본 염려였다고 하겠다. 나아가, 두 사람은 知行의 先後輕重을 논하였는데, 이 논의가 바로 영남 좌우도(퇴계·남명학파) 선비들 간의 논쟁의 쟁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의 편지는 1717년(54세·再配 豊山柳氏의 상중)에 쓴 것인데,

“가르친 바의 학문하는 先後輕重說은 때를 따라 논하자면 독창적인 말이다. 그러나, 道에 나아가는 방법을 통털어 말하자면 知行뿐이다. 까닭에, 舜禹의 精一로부터 孔顏의 文禮에 일찍이 한 번도 꺾한 적이 없어, 大學의 格致誠正(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앎에 이르고, 뜻을 성실히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함)이나, 中庸의 明善誠身(善에 밝아 자신을 성실케 함)이 다 道로 나아가는 한 가지의 길이다. 성현이 사람을 가르친 방법은 세상 천 만고에 걸쳐 한 줄로 그은 듯하여 일찍이 조금이라도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런즉, 西京(前漢) 이하는 道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어찌 단지 道를 몰라서라고만 탓할 수 있으며, 元明 이후는 道가 밝지 못하였는데 어찌 단지 그 행해지지 않은 것만을 탓하라. 朱子가 말하되, (道로 나아가는) 先後를 논한즉 知先 行後요, 輕重을 논한즉 行重 知輕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뒤엎어 치더라도 깨뜨릴 수 없이 다 밝혀놓은 교훈이다. 그런즉, 먼저(先)다 중(重)하다 하는 것도, 때로는 먼저가 아니다. 중하지 않다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뒤(後)다 가볍(輕)다 하는 것도 때로는 뒤가 아니다.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다. 冥翁의 말인즉, 이른바 말세의 폐단인 口耳之學(말로만 하고 듣기만 하는 학문)을 바로 고치려 한 말이라 마땅히 마음에 새겨 경계삼고 반성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이나, 오직 학문의 단계를 논하자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본래, 陶門(퇴계)과 갈래짓기를, 저 新安(朱子)이 江西(왕양명)에게 한 것과는 다르다. 이것인즉, 高明도 지나치게 의심할 일이 아니잖은가?”²⁷⁾

27) 『文集』 권6, 《書》, <與河應瑞>(4書), “南冥先生抵退溪先生曰今之學者 手不持灑掃之節 而口談天理 此實深中學者之病 近來驗之 尤覺親切 然又有一種人 自以爲特立獨行而全不講學 此亦甚偏 於此有難得其當 未知以爲如何 貴鄉後進 志氣殊不餒惰 可以有爲者 不無其人 獨無可與引進激厲者 未免虛度了好光陰 甚可惜也 應瑞何不爲勸誘 使入塗轍也 何處可得大爐輔 點化出一世英 才 使吾道不至太孤也”

28) 同上書, <答河應瑞>(5書), “教以爲學先後輕重 當論其時 此亦獨造之言 然所以造道之

라 하였으니, 息山은 한 마디로 학문의 단계에서의 知先·行後와 그 효용성에서의 行重·知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 변설이다. 더구나, 남명의 말을 퇴계학과 쪽에서도 비난으로 들을 일이 아니며, 남명학과 스스로도 남명이 行重을 역설하려 한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경계한 것이다. 그런데도, 知行論爭은 先後·輕重으로 치달아 息山이 德川書院 院長職을 수락(1721년 알묘)하고 난 뒤(1723년)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학문상) 知行에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서는 아니 됨은 이미 정론이 있어 두 말 할 것이 없고, 冥老의 교훈도 대개 입과 귀로만 학문하는 무리를 경계했을 뿐이다. 만약, 학문하는 길의 大本인즉 반드시 退老(퇴계 교훈)를 따른 연후라야 가히 구애될 근심이 없을 것이니, 이 또한 몰라서는 안 된다.”²⁹⁾라고, 학문의 단계와 효용을 한 가지로 혼동하여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그러기에, 息山은 제자를 가르칠 때도, “독서의 차례가 대개 일상생활에서 務實하려는 뜻이라 참으로 좋다. 그러나, 經書를 먼저 읽고 史書를 나중 읽는 것, 이것이 躡等치 않는 순서요, 또 務實하는 뜻이기도 하다.”³⁰⁾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眞理를 알고 행함에 나아가라는, ‘知先·行後’, ‘行重·知輕’을 함축적으로 가르친 것이기도 하며, 이것이 곧 實心實學이라고 깨우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상주의 후진에게도, “오늘날은 온 세상의 선비정신이 쇠미해져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 힘써서 비천한 데 드는 것을 스스로 좋아하는 이가 많아, 반쯤 오르다 떨어지면서도 美名이나 도적질하고 下學으로부터 上達할 일이 있음은 알지도 못하는 이가 있으니, 이런 무리와는 더불어 함께 학문하여 도에 나아가기는 어렵다.”³¹⁾라고, 경계하였

具 知與行而已(中略)至於冥翁之言 則正所謂矯末世之弊者 口耳之學 所宜佩服警省之不暇 而惟論學門階級則如上所云 本非謂與陶門分歧 如新安之於江西 此則高明無乃過疑之耶”

29) 同上書, <答河應瑞>(6書), “知行之不可偏勝 已有定論 無有二言 而冥老之教 概警口耳爲學之輩而已 若學問門路大本則 必循退老然後 可無滯泥之患 此亦不可不知也”

30) 『文集』 권9, 《書》, <答淵淵>(6書), “讀書次第 概出循常務實之意 固好矣 然先經而後史 乃是不可躡等之序 而亦務實之意也.”

31) 『文集』 권8, 《書》, <答李公健>(3書), “目今學世頹靡 務自斲削 入於苟賤間 有自好者多 在半上落下中 賭取美名 不知有上達事 此輩難與 可共學適者也”

던 것이다. 이도, 역시 口耳之學에 그치는 학자들을 경계함에 그친 것이지, 知行 그 어느 쪽을 두둔하거나 폄하한 말은 아니다. 한 마디로, 石山은 영남 좌우도의 학풍이 말세적 병폐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좌우도의 退溪學派 선비들은 知을 南冥學派 선비들은 行重을 고집하는 말폐적 풍토에서는 實心을 바탕으로 한 實學으로 나아갔을 때만 바람직한 학풍이 조성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영남 좌도의 퇴계학파의 학풍은 謙恭을 미덕으로 여겼고, 남명학파의 학풍은 激厲함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두 학파 공히 知行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는 謙下 하느라 진취성이 없고, 하나는 激峻하여 도가 지나치는 병폐를 안게 되었다고 石山은 진단하였다. 이같은 병폐로 인한 피해를 石山은 自黨으로부터 심각히 받았으나, 謙恭의 道(實心)를 지키는 가운데 激厲의 道까지 지키어 “處士로 완명하고 吾學의 宗匠”이라 칭송받았던 것이다. 남명학파의 학풍쇄신에 술선했던 것도, 자기완성을 위한 求道의 일환이었고, 선비의 사명이 남에게도 공택을 내리고 교화하는 데 있음을 몸소 실천해 보인 선비의 양심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III. 士氣振作

1. 德川書院 院長職遂行

息山이 德川書院 院長에 취임한 1721년(58세) 당시는, 조야의 선비들이 그의 선비정신과 학자적 양심을 익히 보고 들어서 알 때였다. 石山의 出處는, 당시 영남 좌우도의 퇴계학파에게는 유감스러운 충격이었고, 영남 우도의 남명학파에게는 고무적인 용단이었다. 石山이, 영남 우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692년(29세)으로 겨울에 가야산을 유람할 때부터였다. 1697년(34세) 늦가을 상주로 이주하여 <上洛文會>를 道南書院에서 개최할 때 원근의 선비가 모였는데 가야에서 趙重鏞도 참석하였다. 덕천서원 원장에 취임할 당시에는 진주의 선비로서 상주에 이주해 와 있던 河大淵(字淵淵), 河瑞龍(字聖則) 등이 문하에 있었는데 河瑞龍은 진주에서 추앙받는 雲水堂 河澗의 후손이었

다. 또한, 1710년(47세)부터 이듬해까지 학문상 분쟁을 피하여 문경 청화동에서 우거할 때도 우도 선비로부터 <守愚堂遺事>를 받고, 그 소략함을 안타깝게 여겨 한 두 사실을 더 보완하기도 하였으니,³²⁾ 息山이 守愚堂의 古風을 흠모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南冥學風에 대해 어떤 마음을 지녔던가를 짐작케도 한다. 진주의 大覺書院士林으로부터 五賢(柳宗智·孫天祐·金大鳴·李澣·河受一)의 봉안문을 청탁받았을 때, “영남에 산 지 여러 해, 소원하기를 한 번 君子鄉에 들러 吾黨과 더불어 한가로이 즐기며 先賢의 古風을 받들기를 지나 깨나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아직껏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혀만 찻더니, 지난 번에 사문 三秀가 여러 어른의 편지를 지니고 멀리 궁려에까지 와서 외람되게도 儒宮의 중대사를 부탁하였다.”³³⁾ 라 하였으니 이로써도 息山이 南冥學(派)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鼎山書院(지금의 鼎岡書院)士林으로부터도 九賢(鄭溫·姜紱卿·俞伯溫·河潤·李濟臣·李琰·河天樹·陳克敬·朴敏)의 봉안문을 청탁받았을 때에도 적임자가 아니라 사양을 하고서도, “그러나, 한 자리를 얻는 것같은 행운이니 어찌 적은 일이리오”³⁴⁾ 하였으니, 息山이 오래 전부터 南冥學風을 숭상했음은 言外에 다 함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두 서원에 배향된 賢哲들이 南冥의 문인 내지 사숙생들이요, 남명보다 연대가 위인 분들의 후손은 다 남명의 사우연원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덕천서원 쪽에서 중임(원장직)을 맡아달아 했을 때는,

“무릇, 致膳(사당에 제사 드림)하는 예는 대소의 通行儀例가 있는데, 이제 德川으로부터는 단지 한 院隸를 시켜 나에게 오게 하였으니, 처음부터 이 소임을 감당하기도 부족하였지만 거듭 吾黨의 기대까지 여기게 되었다. 염치없이 長貳의 이름을 띠게 되면 그 예의에 온당치 않을 듯 싶다. 만일, 예 아닌데도 받는다면 어찌 스스로만 손상시키는데만 그치랴, 중한 체모조차 이로부터 타락할 것이니, 이는 심히 한스러운 일이다. 감히 되돌

32) 『文集』 권6, 《書》, <答金大集>(3書) 참조

33) 『文集』 권10, 《書》, <答大覺書院士林>, “南食積有年 所願一入君子之鄉 得與吾黨 翱翔 把前哲高風 寤寐不能遺懷 然一病守奧 訖莫之遂 每自咄咄矣 乃者斯文三秀 以僉尊崇牘 遠辱窮閭 猥托以儒宮重事”

34) 上同書, <答鼎山書院士林>, “然如把一席幸 豈淺淺也”

려 보내어 송탄스럽다. 士林에 잘 알리어 천한 이의 어리석은 뜻을 통하게 해 준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³⁵⁾

라고, 하였다. 선비의 거취에 얼마나 儀式을 중시했던가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역시 영남 남인계 퇴계학과 선비들의 온당치 못한 시선을 의식함도 言外에는 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息山の 일거수 일투족은 左道 선비들에게는 스스로를 되돌아 보게 하는, 선비자세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1721년 늦봄에 息山이 다시 학문상 분쟁을 피하여 金陵 蟾峰에 우거하였을 때 金大集³⁶⁾이 직접 식산을 예방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晉陽은 산수가 빼어난 고을이라 옛부터 賢君子들이 살고자 한 땅이요, 식산이 이미 遠慮하여 서울에서 상주까지 5백 리, 상주에서 금릉까지 백 리를 마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3·4백 리의 진양에 구애될 것이냐고 이주할 것을 권하자, “(식산왈)일은 앞을 기필할 수가 없다”하였고, “(대집왈)方丈山에 德川洞이 있어 거기 南冥先生の 유족지가 있으니 어찌 한 번 방문치 않으리오?”하자, “(식산왈)이는 나의 뜻(志)이기도 하다”³⁷⁾라고, 하였다. 이후, 같은 해(1721년) 9월 22일에 금릉을 출발하여 南遊길에 올랐는데 10월 17일에 院長에 추대되고 10월 25일에 원장으로서 덕천서원에 알묘하였다.³⁸⁾ 이때, 남으로 출행했던 기록으로 <南遊>를 남기었는데, 한 길이나 되는 눈이 오슬길을 막고 온 계곡을 메꾸어 유람을 할 수 없게 되자 河應瑞가, “바닷가 인사들이 下風에 서기를 원한 지 오래다. 다행히, 이제 公이 우리 고을에 오셨으니 우리 향당의 선비들이 경모하여 구름같이 모이리라. 이들과 소요하고 강마함에 儒園과 道宮으

35) 《文集》卷6, 《書》, <答河應瑞>(1書), “凡致膳之禮 有大小通行之例 今自德院 只今一院負而至賤陋 初不足以當此任而既重違吾黨之望 冒沒帶長貳之名則 其禮似不當 若是非禮而受 豈止自損而已 重地體貌 從此墜落 此深可恨 敢將還付 悚歎悚歎 教詔士林 俾達愚見 幸甚幸甚”

36) 《晉州鄉校誌》 및 《晉州牧邑誌》 참조. 金聖運의 字는 大集이요 호는 珠潭이다. 金大鳴의 증손인 命兼은 謙齋 河弘度の 문하생으로 여러 번 學薦을 입은 선비인데, 珠潭은 命謙의 아들이다. 이 분 역시 經學과 文詞에 이름을 얻은 선비다.

37) 《別集》 권2, 《地行錄 五》, <南遊>, “曰事不前必 曰方丈有德川洞 南冥先生遺蹟在焉 盍一訪乎 曰是吾志也”

38) 《德川書院誌》, <院任錄 上> 참조.

로 깨끗한 곳이 적지 않으니 하필이면 애써 몸을 피로케 하면서 높고 깊은 곳을 다 밟아야만 유쾌하리오”하자 식산은, “옛날의 聖人과 賢人は 그 道를 행하고자 천하를 철환하였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여 그치었지만, 나같이 한가하고 여유롭게 노는 이야 그 때조차 점치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을 하리오.”³⁹⁾하였다. 겉으로는 유람하는 이라 자처하였지만, 심중에는 선비의 소임을 다 하려는 비상한 각오가 없었더라면, 선뜻 自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대시하는 他黨의 표상인 덕천 서원의 원장에 취임하지는 못 하였을 것이다. 덕천서원 알묘 후에는 남명학과 선비들과의 강론이 있었을 것이 자명하니,

“시종 나를 따라 논 사람으로, 금릉의 姜元伯이 나를 위해 주선하였고, 인도한 사람은 金大集과 河應瑞 두 사람인데 晉陽의 큰 선비였다. 江陽(주·함천)의 金重玉과 玉山(주·安陰)의 申國叟도 해후하여 함께 놀았는데 이르는 수군마다 모인 유생은 수백 인이라 다 기록할 수 없다.”⁴⁰⁾

라는, 말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듬 해에 尙州 北郭으로 환가했으나 선비의 자세를 견지하고 양심껏 학문할 자리를 얻지 못하여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심했으며⁴¹⁾ 1723년에는 금강산 유람을 했고, 1724년(61세) 초여름에는 다시 덕천서원에 알묘하고 난 뒤 지리산 三藏洞을 유람하였다. 이어서, 축석루를 거쳐 멀리 창원도호부에 있던 合浦 서쪽 40리에 있는 匡山(일명 匡廬山·함안경계)의 匡山寺에서 藥泉을 마시고, 광산의 남쪽 斗尺에서 남으로 5리 떨어진 곳에서 月影臺에 오르고, 江陽(함천)의 黃溪瀑布의 장관을 보았으며, 재차 伽倻山 紅澗流을 찾아 上人性能이 막 짓고 있던 武陵橋의 웅장함을 보았으며 밤에는 대장경판 총목록을 보았다. ‘이르는 수 군마다 모인 유생이 수백 인’이었다. 하니, 이들이 모인 이유도 단순히 식산의 유상에 동참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1725년(62세) 봄에는 다시 함천을 거쳐 안

39) 《別集》 권2, 《地行錄 五》, <南遊>, “海邦人士 願襲下風久矣”(以下略).

40) 同上書, <南遊>, “始終從余遊者 金陵姜元伯爲余周旋導之者 金大集河應瑞二人 晉陽之髦士也 江陽金重玉玉山申國叟 邂逅同遊 到底數郡 章甫會者 數百人 不可盡記”

41) 《文集》 권8, 《書》, <答黃翼再>(4書) 참조. 이 편지는 1722년(59세)에 쓴 편지인데 “집터 보는 일이 뜻대로 안 된다”(胥宇問田 不至落落)라는 말이 있음.

음현의 德裕山 三洞(猿鶴洞·花林洞·尋眞洞)을 유상하였다.

息山이 德川書院 원장직을 수행한 5년 동안, 진주를 중심으로 한 거창·함양·함천·산청·함안 등지의 수많은 선비들과의 만남에서 결과된 학문상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自黨조차도 말리는⁴²⁾ 덕천서원 원장직을 수행한 데는 자신의 뜻을 펴려 한 것이 아니라 침체된 南冥學(風)을 흥기시키고자 함에서였던 것이다. 학문상 知와 行은 표리관계인데도, 영남 좌도의 퇴계학파는 知에 치우치고, 영남 우도의 남명학파는 行에 치우쳐, 主理·主氣의 편협성 못잖게 知행의 편중성은 학문의 본질조차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다. 학문에서 知행의 의 조화로운 수행이야말로 實心實學의 수행과 같은 것으로서, 덕천서원 원장직을 수행한 5년 간의 식산 존재는, 남명학파 선비들에게는 참 선비의 삶·양심에 따라 행위하는 학자의 학문을 눈으로 확인하고 표준삼을 수 있는 金剛山같은 존재였다.⁴³⁾ 고도 할 수 있겠다.

2. 先賢尊崇

선비가 선현을 존승함은, 길을 열어 준 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산이 영남 우도의 선현, 그 중에서도 남명학파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선현의 학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었으니, 이는 유학사에서 결코 묻혀서는 안 될 분들이 당쟁으로 인한 당파의 흥쇠에 좌우됨을 부당하다고 본 까닭에서였다.

① <關西問答記疑> - 南冥先生

“關西問答은 潛溪 李全仁(주·이언적의 서자)이 부친에게서 들은 바를

42) 《文集》권6, 《書》, <答河應瑞>(6書), “德川虛帶之任 又爲吾黨所挽 不得解免”이라 하였다. 이 편지는 1723년 작임.

43) 《文集》권8, 《書》, <答權台仲>(14書), 1723년 금강산을 유람한 뒤, “頭流雄而不秀, 清涼秀而不雄 俗離似兼之 而亦未盡至楓嶽, 始知具象體而集大成者 又安得人如山者 以事之耶” 두류산은 웅장하나 준수치 못하고 청량산은 준수하나 웅장치 못하다고 하였다. 이는 退冥學風의 말폐를 암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기록한 것이다. 선생의 微言과 細行을 후간은 자못 실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그러나 南冥의 解辨(주·남명집 2권 소재의 <解關西問答>)을 의심한 곳도 있으니, 어찌 다만 分疏(변명·하소연)를 촉발하려고만 지은 것이라. 그러나, 그의 辨說에도 때로는 지나친 바가 있으니, 후학이 몰라서는 안 되겠기에 따라서, 그 한두 가지에다 남명설을 함께 써서 보도록 한다.”⁴⁴⁾

이 글은 小序다. 潛溪가 1547년 강계로 유배되었던 부친 회재에게서 들은 바를 기록하면서 남명이 이미 해변한 것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한 것이 도리어 바르지 못함이 있어 이 글을 써서 그 사실을 밝히려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 이 글에는, 장례문제를 필두로 道·뇌물·仁 등에 대해 잠계가 부친에게서 들은 사실 열 일곱여덟 가지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아홉 군데는 남명의 설에 대해 회재가 비판했다고 한 글이 실렸다. 식산의 생각으로는, 회재의 설과 남명의 설이 다른 데 대한, 회재의 편에서 남명설을 잠계가 다시 폄하하여 비판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요, 파당을 의도적으로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에 자신이 다시 두 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첫 경우는, 남명이 모친상에 外郭을 쓰지 않고 娠灰(조개껍질 태운 재·용도는 석회와 같음)를 쓴 데 대하여 잠계는, “大人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曹植 역시 멋대로 이상한 일 하기 좋아하는 병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남명의 해명을 요약하면, “바닷가 사람들이 蛤灰(조개껍데기 재)를 상용함은 그것을 가난한 집에서는 마련키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두 설을 두고 息山은, “회재와 남명의 출처가 절로 같지 않아, 두 선생이 비록 합석하여 논하여도, 나는 그 합치되는 것은 적고 불합치 되는 것은 많으리라 본다. 그러나, 장례에 娠灰를 쓴 일인즉 남명이 해명한 말로써 보면 어찌 깊이 의심할 일이지요. 만일, 가정 형편에 맞게 土物을 씀이 남명이 말한 바대로라면 실로 해로우 것이 없다.”⁴⁵⁾라고, 하였다.

44) 《文集》卷13, 《雜著》, <關西問答記疑>, <關西問答者 潛溪李全仁 記其所聞於家庭者也 先生微言細行 或頗載焉 有不可忽 然間有疑 南冥解辨 豈但爲觸發分疏而作耶 然其所辨之說 時有所太過 則後學不可不知也 姑記其一二兼取南冥說觀焉”

45) 上同書, “若信然則曹植 亦有好爲自異之病也”, “近海之人 例同蛤灰 爲取其易辦於窮家

둘째 경우는, 회재가 경상감사가 되어 右兵使 金軼과 함께 배를 타고 김해로 향할 때 남명이 山海亭에서 이 사실을 듣고 비난하기를, “武夫 무식한 사람과 더불어 어찌 같은 배를 탄단 말인가? 심히 비난했다한다. 이 또한 曹植재의 편견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대저, 들으니 曹植의 사람됨이 청렴 결백하다고 스스로 높이고 實弘한 도량이 없으면서 伯夷의 고사를 본답으려 한다 하셨다.” 이 말에 대하여 남명은 회재(字 復古)가 잘못 들은 것이라 해명하기를 감사와 병사의 격식갓춤이 돋보여서, “이제야 道主의 체모가 서고 紀律이 무너지지 않는 일을 얻었다.”⁴⁶⁾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식산은 기록한 사람의 착오라 하였다. 사실무근의 낭설이 당대 영남의 석학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영남의 학풍이 얼마나 괴란되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인 예라 하겠다.

셋째의 경우는, 잠계가 부친에게 묻되, “敬을 지니지 않고도 君子가 될 수 있습니까?”하자, “비록 敬을 지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받은 자질이 순미한 자가 있다면 자연 악한 일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회재가 대답한 말에 대하여 식산은, “天資가 粹美하여 악한 일을 저질지 않으면 가히 善人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敬을 지녀 말미암지 않으면 가히 君子라고는 할 수 없다”⁴⁷⁾라고, 잠계의 들은 바를 엄척하였다. 이는, 기록자가 세미한 실수를 저질러도 회재의 학덕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변증이기도 하다.

<關西問答記疑>는, 위의 세 경우와 기록자(잠계)의 말이 온당치 못한 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남명의 해명에도 미진함이 있으면 자신의 믿는 바를 서슴지 않은 경우의 네 유형의 글이 실렸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이 글은, 영남의 대유들인 회재나 남명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 혐의를 받을까 염려함에서 그 시비곡절을 엄정한 객관성으로 변증하는

也”, “晦齋與南冥 出處自不同 二先生雖合席而論 吾知其合者少而不合者多矣 然常用 蠅灰事則 以南冥自解者觀之 何可深疑之 若稱家之力 用土之物 如南冥所云則 固無害”

46) 上同書, “與武夫無識之人 豈可同舟乎 其非之云 此亦曹植之偏處也”, “大抵聞曹植之爲人 清潔自高而無寬弘之量 欲效伯夷之事者也”, “方得道主之體 而不虧紀律之事也”

47) 上同書, “問曰有未持敬而爲君子者乎 曰未持敬 天資粹美者 有自然 不作惡事也”, “天資粹美 不作惡事則 可謂善人 不由持敬則 不可謂君子”

데 주 목적이 있었으나, 보다 일방적으로 폄하된 남명의 입장에 더 관심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다.

② <讀守愚堂實記> - 守愚堂先生

“守愚堂 崔公이 한 번 鄭澈의 뜻을 거스리어 끝내는 큰 화를 당하였으니,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여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대개, 공의 학문은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을 주로 하고 저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嘉言(아름다운 말)과 懿行(멋뎡한 행실)은 반드시 전할 것이 많았을 것이나, 당시 禍色이 심히 참혹하며 붕우나 문인조차도 서술한 바가 없다. 이제, 實記를 읽으니 근근이 한두 가지로 엮어 소루함의 한탄을 못 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책을 덮고 크게 탄식하였다. 會考 柳文忠公(주·西厓 柳成龍은 처중조)의 《雲巖錄》을 읽다 보니 그 가운데 一條는 守愚事를 기록한 것이라, 諸公의 말로 상세함을 더하여 보이고, 또 澈과 수작한 일 三條를 기록하니 白沙錄과 비교하면 또한 상발할 것이 있으리라.⁴⁸⁾

이 글은 서문이다. 실천유학자요 곧은 선비였던 수우당의 嘉言·懿行은 저술 못갈게 후세인을 감발시키는 산 표본이 될 것임에도, 거의 인멸된 것이 애석한데 게다가, 실기를 엮은 일조차 소루함을 면치 못하여, 식산이 보고 들은 바로써 그 소루함을 보완하려 하였다. 이는, 수우당의 높은 덕을 천양함이 후진에게는 공택을 내리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1710년에서 2년 간 문경 화음산 청화동으로 학문상의 분쟁을 피해 있을 때 완성되었으나, 서인 집권기인데다 수우당은 남명의 고제였던 까닭에 바로 보이기 위해 저술한 것은 아니었는데, 문인 趙生이 잘못 전파하였다는 술회⁴⁹⁾도 있다. 더구나, 남명학파 선비들에게도 미안하게 된 것은, 소루한 실기를 엮었다는 흠을 남도록 한 것이었다. “비록 그러나, 귀향의 士友들이 책망하지 않고 이같이 곱혀 묻기까지 하니 어리석은 이로서는 부끄러운 위축

48) 《文集》卷18, 《雜著》, <讀守愚堂實記>, “守愚堂崔公 一忤鄭澈 終罹大禍 至今令人於悵 蓋公之學 反躬實踐 不喜著述 然嘉言懿行 必多可傳 當時禍色甚慘 朋友門人 無所敘述 今讀實記 僅綴拾一二 不免有疎漏之歎 爲之揜卷太息也 會考柳文忠公雲巖錄 其中一條 記守愚事 視附錄諸公語加詳 又三條記與澈齟齬事 比白沙錄 亦有相發者”

49) 《文集》卷6, 《書》, <答金大集>(3書) 참조.

됨이 더욱 심하다. 그러나, 또한 南冥과 守愚堂의 교훈이 후세인의 마음에 남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근세의 澆雜한 풍습과는 전혀 달라, 가상코 가상하다.”⁵⁰⁾라고, 하였다. 식산이 수우당의 일을 발설한 것은, 오로지 선비의 사명감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먼저 특기할 수 있겠다.

기록의 대강은 첫째, 수우당이 가난하여 진주로 내려가 동생 餘慶의 집에서 살았는데, 매사에 수우당이 주장하고 여경은 도리어 물어서 일을 처리하여 主客을 모를 정도였다. 남들이 다 두 분을 賢人이라 칭하였다. 이는, 守愚家의 家法을 단적으로 보임이다. 둘째, 成渾과는 절친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언젠가는 澈에게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꺼리지 않고 말하여, 성혼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이는, 권세에 아첨할 줄 모르는 수우당의 기개다. 셋째, 수우당이 투옥되었을 때 西厓가 추관이었던 松江에게 ‘永慶은 高士로 重名이 있으니 옥사에 신중하라’하니, 송강이 수우당의 평소 말을 되뇌어 獄官에 있으니 잊어라 하니 그러마라고 했다. 넷째, 다시 국문할 때는 송강이 겉으로 구제하는 체 하면서도 음성적으로는 黨論을 따랐다. 다섯째, 西厓가 安州에 있을 때 松江이 체찰사가 되어 서로 만났는데 송강이 자신을 지금도 의심하는가 하여 서애가 한참만에, “公의 마음은 알 수 없으나 形迹으로 보면 흠사 그런 것도 같다.”고, 하였다. 송강이 이에 성을 내며 자신이 수우당을 구제하려던 뜻을 실은 편지가 성혼에게 있다고 증거 대었다. 편지한 것은 사실이나, 성혼이 송강을 사주해 수우당을 죽였다는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하였다. 다섯째, 수우당이 일찍이 배를 타고 상주 竹巖까지 거슬러 오르다가 竹巖에 金光準의 정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불연히 뱃머리를 돌리며, “어찌 蛇蟻窟에 들러오”하였으니 이는 의롭지 못한 일에는 역시 권세에 굴하지 않는 기개를 보임이다. 여섯째, 鄭仁弘이 찬한 銘을 수록함이 守愚堂에게 무슨 도움이 되랴 함 등이었다. 이 가운데, 둘째·셋째·넷째 항이 《雲巖錄》 소재의 비공개 자료였다.

50) 上同書, “雖然貴鄉士友 不以爲責而有此俯詢 其在愚分 愧縮尤深 而亦可見南冥守愚之教 在人心 至今不泯 與近世澆雜之俗 不侔矣 可尙可尙”

③ <記江城君事> - 文益漸先生

이 글은, 퇴계가 쓴 <前朝故左司議大夫孝子碑閣記>⁵¹⁾에서, 퇴계가 文益漸을 ‘忠孝大節人’으로 허락하며, 목화씨를 전파한 공 못지 않게 후세인이 존경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文益漸을 퇴계가 과대평가 하였다는 시비가 일자, 식산이 이에 퇴계의 속뜻을 밝히고 나아가 문익점을 목화씨 전파의 공훈자요 忠孝를 실천한 선비였다고 재차 확인한 글이다. 남명도 <三憂堂文公墓祠記>⁵²⁾에서 문익점의 목화씨 전파는 그의 忠節에서 나온 것임을 특서한 뒤의 글이기도 하다.

요지는, 충선왕이 축출한 궁인의 아들 德興君(왕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이 元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江城君도 거기 가담한 사실(여러 사적 및 문집에 발췌)을 들어 강성군을 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江城人物錄》에는 孝子로 立碑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그의 孝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식산도 의심하는 이가 제시한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孝는 江城傳에 붙은 註의 말(왜구의 침범에도 동요치 않고 三年廬墓하여 太宗追贈한 사실)로, 효자의 행실이 엄연히 사실인데 효자비가 있고 없음이 무슨 의심거리냐고, 시비자를 엄척하였다. 忠에 대한 의심에도 논어의 이른바 ‘허물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허물이다.’한, 공자의 뜻을 바탕으로 변증하되, “또한, 선생이 그의 忠을 허락한 것은 고려 때가 아니라, 조선 때의 일이다. 사람이 실로, 처음에는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나중에는 옳한 데로 돌아가는 자가 있다. 江城君이 革命(조선 개국)뒤에 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은, 德興君에게 붙었던 죄를 거의 속죄한 것이니 그런즉 더욱 선생(주·퇴계)에게는 누설 바가 없는 것이다.”⁵³⁾라고, 명쾌하게 해명하였다. 나아가, 식산은 선생의 문집에 이 한 편이 실림으로써 뒷사람에게 의심을 야기할 수도

51) 계명한문학연구회 연구자료총서 1, 《退溪先生文集》 권42, 참조.

52) 한국문헌자료연구소, 《南冥集》, 아세아문화사, 1981 《南冥先生續集》, 《記》 참조.

53) 《文集》卷16 《雜著》, <記江城君事>, “且先生所以許其忠者 不在勝國時而在我朝人固有誤於始而善其終者 江城之不貳心於革命之後者 庶可贖附德興之罪 然則尤無所累於先生者矣”

있어, 강경한 자는 ‘史筆 역시 족히 믿을 게 못 된다’라, 할 것이니 이것들이 다 선생을 존경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는, “대개, 망녕되지 의혹을 내어서도 안 되며, 또 왜곡되게 여러 모로 가리어 덮어서도 안 된다. 다만, 조각 구름에 가렸던 해를 본 연후에야 거의 선생의 마음에 등짐이 없을 것이요, 강성군의 功過 善惡 역시 덮을 수만은 없어 그 대강을 적어 吾黨의 선비들에게 보인다.”⁵⁴⁾라고, 끝을 맺었다. 이같은 식산의 변증은, 곧 허물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음이 진실로 허물임을 알고, 남의 선함을 드러내고 악함을 덮어주는 도량이 있는 퇴계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만일, 退溪의 孝子碑閣記가 진실이 아니라고 오해된다면, 江城君의 忠孝는 허위가 될 것이요, 退溪는 曲筆한 선비가 될 것이며, 나아가 墓祠記에서 江城君을 忠節人으로 본 南冥에게도 누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세 大儒를 부호한 식산의 원려심은 가히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 하겠다.

④ <大覺書院奉安文>

전술한 바와 같이 大覺書院에 봉안된 선비는 거의가 南冥의 문하생이요 사숙생으로 진주의 선현들이다. 이 항에서는 봉안된 분의 약력을 소개하고,⁵⁵⁾ 끝에다 봉안문의 두 구절만 소개한다.

· 潮溪 柳宗智(1546~1590) ; 字는 明仲이며 남명의 문인이다. 수우당과 도의교하였는데, 義理에 밝고 公私에 분명했다. 수우당·하각재·하영무성 등과 덕천서원을 건립했으며, 기축옥사로 원사하였다. “南冥模楷·남명을 표준 삼고, 守愚麗澤·수우당과는 德業을 닦았다.”

· 撫松 孫天祐 ; 字는 君弼이며 남명의 문인이다. 天資가 醇厚하고 행위가 독실하였으며 孝友 지극하였다. 역시 봉우와 덕천서원을 건립하였다. “先民遺範·선민이 끼친 規範·忠信是委·忠信에 맡기었다”

54) 上同書, 原文省略.

55) 참고자료는, 德川書院誌, 新增東國輿地勝覽, 嶺南人物考, 慶尙道地理志(邑誌), 晉州 鄕校誌 등의 책이나 일일이 출전은 밝히지 않는다.

· 白巖 金大鳴(1536~1593) ; 字는 聲遠이요, 生員으로 1570년 文科壯元. 才學이 절륜하여 약관 전에 文名을 얻었다. 四郡을 다스림에 치적이 있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전리에서 제자를 양육함. 임난에 창의하여 공을 세움.

“急流勇退· 벼슬길에 득의했으나 용감히 물러나 標榜不弁· 드러냄에 급하지 않았다.”

· 茅齋 李澗 ; 字는 汝涵이요 남명문인이다. 才藝가 초범했으나 과거운이 불리하여 은덕했다. 임란창의의 공으로 사근도찰방이 되었다가 청주목사 창원부사를 역임했다. 덕천서원을 증건하고 그 원장이 되었다. “性理之章· 성리학의 연구문장 妙合前訣· 묘하게도 前訣에 맞다”

· 松亭 河受一(1553~1612) ; 字는 太易이며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1년 문과급제함. 숙부 河覺齋를 사사하고 남명을 사숙함. 상주제독· 경상도사를 지냈으나 용퇴하여 水谷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勿勿之誠· 쉬잡고 힘쓴 정성 休休之量· 너그러운 도량”

⑤ <鼎山書院奉安文> (주· 鼎岡書院의 당시 이름)

· 隅谷 鄭濫 ; 고려 정승 碩의 아들로 자헌대부에 올랐다. 러말에 靑盲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었고, 태조의 부름에 불응하였다. “堂堂義服· 당당히 의를 좇아 不逃其尖· 날카로움 피하지 않았다.

· 守軒 姜叔卿(1428~1481) ; 字는 景章이요, 밀양부사· 사헌부집의를 지냈고 효성이 지극하여 왕이 봉모상소에 함안군수를 제수함 “爲仁有本· 仁함에도 근본 있어 源深流達· 근원 깊어 멀리 이른다.”

· 雲水堂 河潤(1452~1500) ; 字는 睟夫요, 金之慶의 문에 장가들었으며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1499년에 문과급제함. 천성이 강· 간결· 단정· 엄숙하였으며 忠孝로 수행의 근본을 삼았다. 사헌부지평으로 직언하다 외보로 밀려났다. 은거하여 鄭光弼과 도의교하였으며, 行狀은 李萬敷 찬이다. “器度方嚴· 기국과 도량 방정 엄숙하고 學的行茂· 학문은 행위에 盛하였다.”

· 進士 俞伯濫(1492~?) ; 字는 仲玉이요 진사였다. 청빈하여도 독서를 좋아했고, 덕으로써 모질던 서모· 서제를 감화시켰다. “糠粃文華· 폐기물에 文

華두어 餘教移忠·교화시켜 忠으로 옮기었다.”

· 陶丘 李濟臣(1510~1582) ; 字는 彦過요, 10세에 스승 安宙로부터 史庫라 칭찬받음. 어려서부터 적선하기를 좋아했으며, 21세 성균관에 입학하여 襄紳·金範·呂應龜 등과 도의교함. 인조의 죽음에 심상3년하고, 만년에 남명을 사사하니 스승이, “彦遇는 나의 老友”라 함. “忠孝一致·忠孝 지극하니 感應左契·낮은 이들도 감응하였다.”

· 雲塘 李 琰(1538~1588) ; 字는 玉吾요, 어려서부터 小學과 四書에 힘씀. 大學 誠意章으로 생활의 규범을 삼았으며, 형제애도 지극하였다. 수우당·하각재·류조계와 도의교하고, 참봉이었다. “巖巖自立·우뚝히 자립하였고 茂行知本·뛰어난 행의 근본을 알았다.“

· 新溪 河天澍(1540~?) ; 字는 解叔이요, 처음은 남명 문하에서 근사록을 수학하고, 뒤에 수우당의 문하생이 되었다. 효우는 하늘에 닿고, 사림의 금식이었으나 일찍 죽어 세인이 애석해 하였다. “薑桂天植·갈수록 강직함은 하늘이 심은 바요 未自得歸·일찍이 귀의할 곳 얻었다.“

· 栢谷 陳克敬(1546~1617) ; 字는 景直이요 남명 문인이다. 강직하여 義를 보면 용기를 내었다. 선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함은 천성이었다. 임란 후 덕천서원을 중수하고 원장을 역임했다. “固窮之操·궁한 데서도 지조지켰고 磨愚與覺·수우당과 각재로 더불어 강마했다.“

· 凌虛 朴 敏(1566~1630) ; 字는 行遠이요, 寒岡의 문인이다. 1627년 진사가 되고, 1627년(정묘호란)에 의병장이 되어 원종훈록에 올랐다. “奈人非陳·누군들 處하지 않으랴만 擇地而種·자리를 가려 德을 심었다.“

이상의 열 네 분은, 南冥과 師友淵源이 닿는 분이 대부분이며, 남명학과의 중추적 인물들이라 할 만하다. 두 서원의 봉안문을 닦음으로써 息山은 침체된 학계에 큰 기운을 불어넣은 격이 된다. 서원에 봉안된 14賢은 하나같이 忠孝를 실천한 실천유학자들이다. 일상의 예도 못 갖추었으면서도 천리나 논하는 口耳之學者들이 아니었기에, 先賢의 高風席에 참여하는 성심으로 봉안문을 닦았음은 서원 사림과의 편지 왕복으로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안음의 <道淵書院二樂堂周公奉安文>⁵⁶⁾에서는 周怡의 덕을 기

렸으며, <江陽君李公墓碣銘>⁵⁷⁾에서는 고려조의 孝子 江陽君 李瑤의 출천한 효성을 기리었다. <玉洞文公墓碣銘>⁵⁸⁾에서는, 남명의 고제였던 玉洞 文益成(1526~1584)을 魁偉士요 孝子로 공안하며 德溪 吳健과 覺齋 河沆과 도의교 하였음을 특기하여, 南冥高弟 3인을 은연중에 다 드러내었다. 이 밖에도 묘갈문에서 松溪 朴以炯(1608~1679), 處士 朴大奎(1635~1684)등을 '篤實行者'로 덕을 기렸다. 또한, <醉軒金公詩集序>⁵⁹⁾에서는 醉軒 金紐의 시를, "用意가 깊고도 미묘하며, 감흥에 부친 것도 攸遠하며 유창하고 힘차서 마치 金玉의 소리가 날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文敬庵遺稿序>⁶⁰⁾에서는, 敬庵 文東道の 글을 읽고 그가 '奇士'임을 알았다 하였고, <尤悶堂集序>⁶¹⁾에서는, 南冥을 사숙한 尤悶堂 朴綱(1583~1640)을 '不知不愠之君子'로 그 덕을 극찬하였다. 이 분은, 朴崑의 5세손이요, 陝川의 龍淵書院에 배향된 큰 선비이다. 그 외 <南遊>⁶²⁾중에서 江陽(합천)의 寒沙 姜大遂(1591~1658)의 淸德을 시⁶³⁾로 남기었는데, 그는 直臣이었으며 道淵書院에 배향된 선비다. 진주 宗川의 慕寒齋에서 謙齋 河弘道(1593~1666)의 인격을, 眉叟 許穆이 쓴 挽詞(謙齋集 권12)를 재인용하여 哲人은 玉珉같다고 기리었다. 겸재는 남명의 고제였던 覺齋 河沆의 조카인 松亭 河受一을 사사했으며 평생에 南冥을 사숙한 큰 선비였다.⁶⁴⁾ 이같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군의 先賢을 거의 망라하다시피 하여 그 분들의 덕을 기린 것은, 한 마디로 南冥學派의 士氣를 진작시키려는 實心의 발로였으며 그 자체가 實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智異古事>⁶⁵⁾에서도 南冥學의 근원을 함축적으로 밝히었는데,

56) 「文集」 권19, 《祝文》 참조.

57) 「文集」 권21, 《丘墓文》 참조.

58) 上同書, 참조.

59) 「文集」 권17, 《序》 참조.

60) 上同書, 참조.

61) 上同書, 참조.

62) 1721년 덕천서원의 원장이 되어 남유하며 남긴 기록.

63) 「文集」 권21, 《詩》, "余滯江陽也 訪姜斯文世美 卽故寒沙公之曾孫也云云"

64) 「別集」 권2, 《地行錄五》, <南遊> 참조.

65) 「別集」 권3, 《地行錄七》, <智異古事> 참조.

“曹南冥선생이 처음에는 鵞洛(김해)의 바다 위에 山海亭을 짓고 기거하다가 만년에 德川으로 들어와 雷龍亭·鷄伏堂을 세웠다. 지금의 德川祠는 뇌룡정의 옛터에서 서남으로 오륙 리 떨어진 개울 위에 있다.

당시, 寒岡 鄭先生(鄭述), 東岡(金宇顯), 守愚堂(崔永慶) 등 여러분이 선생을 존경하여 모셨고, 또 문하에는 異士가 많았다. 陶丘翁이란 사람은 집안의 재산이 매우 부요하였는데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기에 힘써서 손에 닿는 대로 재물을 다 흠어버리고는, 덕천동의 동구 밖 개울가에 초가를 짓고 옹기로 헌 창틈을 막고 노끈으로 문고리를 잡아 매어서 몹시 가난하게 살면서 몸소 옹기를 구워 밀천을 삼아 살림을 꾸렸다. 간혹 남명선생에게 가서 선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다가 생애를 마치었는데, 아직도 개울 반석 위에 ‘陶丘臺’란 곳이 있다.

德川祠를 창건할 때에는 守愚堂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수우당이 사화를 입게 되자 儒林의 공론이 몹시 아쉬워하였고, 끝내 덕천사에 배향하게 되었다.

임진란에 왜구가 갑자기 산에 쳐들어 오자 선비나 백성이나 모두 달아나 숨어버렸는데 서원의 종이 사당의 祠板(위패)을 받들고 암굴 속에 숨겨 두었다가 난이 평정된 뒤에 사당집을 다시 지어 옮겨 모셨다고 한다.“

윗 글은 네 개의 사실을 밝혀 놓았다. 첫째는, 남명이 德川洞으로 이주해 오으로써 진주의 서북 지방이 학문의 고장이 된 사실을 함축적으로 암시하였다. 둘째는, 남명 문하에 큰 선비들이 모여 들었고 異士들이 많았다. 그 예가 陶丘翁이다. 유학을 실천궁행한 표본이니, 이는 남명학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라 하겠다. 옹기를 구워 생업으로 하는 제자가 스승을 찾음이나, 제자를 기꺼이 맞은 스승의 학문적 자세·선비의 도리는 말 아니해도 짐작케 하였다. 식산이 본 ‘陶丘臺’는 곧 實心實學의 현상이었을 것이다. 셋째는, 영남 우도 선비들의 기풍을 알 만하게 한 글이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의연했던 守愚堂을 끝내 덕천서원에 배향한 것은, 南冥의 學統이 어디로 이어졌던가를 암시한 중대사라 하겠다. 영남 우도 남명학파의 학풍을 激峻·高節로 일컫게 된 것도 그 연원이 있다 할 수 있다. 다섯째는, 南冥의 德化가 미친한 사람에게까지 깊이 미치었음을 암시해 놓은 단락이다. 식산은, ‘文은 器’⁶⁶⁾라고 본 文以載道觀의 문장가이기도 하다.⁶⁷⁾ 그

66) 李萬敷, 「志書」 권8, 《述言中篇》, <文>, “文器也 詩書易春秋 聖人之道載焉”이라 하여, 諸子の 文에는 異端의 도를 실었으나 辭章文은 실은 게 없다고 함.

67) 「文集附錄上」, <行狀>(李漢撰) 참조 “선생이 詩文에 뜻한 바는 아니나, 蘭馨과

가 글에 실은 道는 바로 實心 그것이었음을 이 한 편의 글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이에, 식산이 남명의 후손에게 준 시 <南冥後孫曹生贈丁公滕杖>(68)을 이 항의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天王峰上丁公滕
根生老苔千年壁
方丈主人斬而歸
慇懃贈我殊不惜
杖兮杖兮勤而直
能令衰朽強生力
吾將訪三藏
珠潭幽且淨
杖此可以恣窮陟
意寄珍重謝無地
把手尊前還息
大賢之後久陵遲
相者先肥更後瘠
君莫嗟君莫嗟
袞袞源頭有所積

천왕봉 산마루의 마가목은
천년을 절벽에서 늙어 뿌리에 이끼 돌았네
方丈山 주인이 잘라서 돌아와
은근히 내게 주며 조금도 아끼지 않네
지팡이여 지팡이여 굳세고도 곧아라
늙고 썩은 몸 억지로라도 힘나게 해 다오
나는 곧 三藏洞 찾아가리니
眞珠潭은 그윽하고도 맑은데
이 지팡이 의지하면 꼭대기까지 오르리.
보내온 뜻 진중하여 고맙기 그지없어
술잔 앞 손을 잡고 크게 한숨 쉬나니
大賢의 후손이 오랫동안 밋밋하여
相쟁이가 선대는 살찌고 후대는 여윈다고
그대 한탄치 말라 그대는 한탄치 말라
끝없이 이어질 근원엔 쌓은 德 있나니

贈詩의 妙를 극대화시킨 시라 하겠다. 天王峰上의 천년절벽에 뿌리내린 굳고도 곧은 마가목은 南冥의 정신이다. 그 후손이 그 정신을 시인에게 보내 주었다. 深源(三藏)을 찾아가려니 그 표상인 眞珠潭은 그윽하고도 깨끗하다. 걸만 보는 相쟁이는 곤곤한 근원에 쌓인 德(속)을 볼 수 없는 일이나, 먼저는 살찌고 뒤는 여윈다는 허탄한 말에 개의치 말라는 위로요 격려다. '先肥後瘠'의 유언비어는 당시 남명학파의 침체를 가정사실화 하려는 음해자들의 조작된 말일 수도 있다. 막히고 뚫림은 시인이지만, 근원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할 일이냐고, 남명의 후손에게만이 아니라 남명학파 모든 선비를 향한 위로요 격려라 하겠다.

玉潔같은 문체가 절로 드러나, 문학을 한다고 하는 이도 선뜻 자리를 양보치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金大集(진주)은 息山을 明의 고문과 문장가 王世貞에 비견하였다. (文集6卷·答金大集五書)

68) 「別集」 권2, 《地行錄五》, <南遊>참조.

IV. 理氣論展開

息山이 당대 남명학파의 큰 선비들과 학문을 논하게 된 것은 대략 1697년(34세·상주로 이주)이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해 상주 道南書院에서 개최한 <上洛文會>에 합천(가야)의 선비 趙重鏞이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상주에서는 문하에 진주에서 이주해 온 河大淵(字淵淵)·河瑞龍(字聖則) 등이 있었고, 1710년(47세·문경 화음산 우거)을 전후해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명학파 선비들과 서신왕래로 학문과 시사를 논하였으며, 1721년(58세·덕천서원 원장) 이후부터는 그들과 직접 면대하여 학문을 논하기 시작했다. 이 때는 이미, 문하에 진주에서 온 李生(성명미상)·吳生(성명미상) 등과 字로만 불린 분들이 상주 북곽(식산 거주지)에서 수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덕천서원 원장수행 과정의 5년 간 우도 선비와 만난 사람은 수백에 이르고 그 지역 또한 진주 중심의 인근 군현의 선비는 거의가 식산의 강론을 들었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鄉史에 남은 선비로는 진주의 金大集(名聖運)과 河應瑞(名大應 또는 世應), 柳信玉(雲谷거주나 名未詳)과 李聖瞻(台亭·元塘거주)을 비롯하여 江陽(합천)의 金重玉(名未詳)과 玉山(안음)의 申國叟(號南溪·名命耆) 등은 식산이 그들을 큰 선비로 허여한 분들이다.⁶⁹⁾ 이들은 다, 당대 남명학파에서는 영향력이 있던 향토의 선비들로서 식산과는 직접 간접(편지)으로 많은 학문을 논하였다. 특히, 이들에게 권장한 공부는 孔孟學의 진수인 四書三經이었고, 문학생들에게는 大學으로 의리로 드는 방법을 일깨우려 했으며,⁷⁰⁾ 독서에서도 先經·後史를 권장하였다.⁷¹⁾ 그러나, 상주와 진주는 가까운 거리

69) 金大集과의 서신 왕래 증거로 書5篇이 있고, <方丈新構記>, <大集壁書方丈謠二首> 시 등이 있다. 河應瑞와는 가장 절친하였는데, 書9篇과 <書河上舍應瑞樂天知命說後>, <河應瑞哀辭> 등이 있다. 李聖瞻과는 書4篇과 <遙祭學者李聖瞻文> 등이 있다. 申國叟와는 서신 2편이 있다. 金重玉과는 <答金斯文問目·속집권2>가 아닐지 미상임.

70) 「續集」 권1, 《書》, <答河應瑞>(1書) 참조.

71) 「文集」 권9, 《書》, <答河淵淵>(1書) 참조.

가 아니어서 주로 서신으로 강론함이 많았으니, “만약 저쪽이 물 대어 이쪽이 받듯 한다면 멀어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산천이 가로놓여 서로 친하지 못한 것은 유독 몸일 뿐이다. 만약, 이같이 왕복해 강론한다면, 저 일야로 이익을 얻기에 급급하리라”⁷²⁾고, 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서신왕래나 면담에서 식산이 강조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편중되지 않는 공평한 마음으로 實心實學에 충실할 것이었지만 下學而上達하는 선비로서는 實踐儒學을 바탕으로 性理學으로 나아가는 일을 은연중에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성리학자들이 자칫하면 口耳之學에 떨어질 위험은 있으나, 식산도 性理論(理氣論)에 일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잠하여 自家說을 수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론에 빠져서는 아니 됨을, “理氣之辨은 만사의 근본이요 학문의 두뇌라, 이에 그릇되면 그릇되지 않음이 없으니, 크게 두려운 일이다”⁷³⁾ 라고, 하였던 것이다. 息山은, 退栗의 主理·主氣論에도 미진처가 있다고 보아 自家의 理氣論을 수립하였는데,

“임금에게 忠誠하고자 하는 것, 어버이에게 孝하고자 하는 것, 어른에게 恭敬하고자 하는 것,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함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類같은 것은 곧 天理上(주·本然·本性上)의 知覺이요, 주리면 먹고 싶어하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어하고, 추우면 옷을 생각하고, 고단하면 평안코 싶은 마음이 이는 類 같은 것은 곧 形氣上(주·一身上)의 知覺이다. 그 知覺하는 理는 하나인데도 知學하는 所以(까닭)는 같지 않다.”⁷⁴⁾

라고, 하였다. 이는, 만상의 존재 가치를 主理·主氣로 파악할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은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인간의 지각작용이 天理上(純善·本性·理性)에서 이루어지는가 形氣上(有善惡·一身上·感性)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本然之性·道心·四端과 氣質之性·人心·七情 등의 두 이름이

72) 「文集」 권6, 《書》, <答河應瑞>(1書) 참조.

73) 「文集」 권8, 《書》, <答權台仲>(7書), “至於理氣之辨 萬事根本 而學問頭腦 此處誤則無處不誤 大可懼也”

74) 「文集」 권12, 《雜著》, <露隱山房錄>, “如於君欲忠 於親欲孝 於長於弟 於孺子入井 有惻隱之類 卽天理上知覺也 如飢思食 渴思飲 寒思衣 勞思安之類 卽形氣上知覺也 其知覺同而所以知覺不同也”

생각 뿐이란 논리다. 그러므로, 식산이 강조한 것은 實心の 完備였으니, 知覺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식산의 이기론과 관련지어 그의 사물관을 보면, 1713년에 진주의 金大集이 방장산 迎勝洞 銑溪 眞珠潭 위에 서재를 짓고 기문을 청하며 자신의 장수지가 명승지라고 자랑했을 때,

“비록 그러나, 앞사람이 가르치길 山水觀에도 術(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모습(象)을 저기 드러내면 이치(理)는 이에 갖추어져 있다. 理가 實(진실·성실·충실)하면 妄(虛·假)치 않는 까닭에 지닌 바의 實이 實 아님이 없으나, 지닌 바가 허망하면 허망치 않음도 없다. 무릇, 山水가 이어지고 흐름이나, 새나 물고기가 지저귀고 회롱하는 일, 그 어느 하난들 實이 드러난 것으로 안팎(이치·모습)의 근본이 합치된 것이 아니라?”⁷⁵⁾

하고, 모습(현상)과 이치(본질)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觀者의 마음(知覺)에 달렸다고 하였다.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을 짓게 한 이치를 볼 줄 몰라도 안 되며, 이 둘을 다 보려는 實心이 없이 경치만 보거나 또 남이 하나까 따라 하는 일 등은 금물이라고 하였다. 이 기문도, 식산의 이기론에서 보면, 관람자의 知覺이 天理上이나 形氣上이냐에 따라 모습만 보느냐, 모습과 본질을 한가지로 다 보느냐의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는, “天·地·人이다 實이 있어 하늘·땅·사람이 된다”고, 한 말을 글을 통해 일깨운 것이라 하겠다. 식산이 지리산 삼장동을 유람한 뒤 <智異古事>⁷⁶⁾를 남기었는데 이 글은 기행문이면서 地誌를 겸한 實心之文이라 할 수 있다. 그 한 예를 보면,

“산의 서쪽에 있는 七佛寺는 옛 이름이 雲上院이다. 신라 진평왕 때에 사찬 金恭永의 아들 玉寶高가 雲上院에 들어가 30曲調를 지어 거문고를 타니, 경덕왕이 듣고 7일을 제계하였다니 옥보고가 와서 거문고를 타서 樂府에 전하게 되었다. 왕이 기뻐하여 37암자를 짓고 雲上院으로 主刹을

75) 『文集』 권17, 《記》, <方丈新構記>, “雖然前人有訓 山水之觀 有術矣 象設於彼而理具乎此 理實而不妄 故所存實無不實 所存妄無不妄 凡延泳乎時流 嘲弄乎飛潛 孰非實之著而合內外之體者耶”

76) 『別集』 권3, 《地行錄七》, <智異古事>는, 식산이 각종의 地誌와 옛 사람의 기록을 읽고 또 지방민의 증언을 토대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地誌를 제작했는데 문장력이 뛰어나서 문학성 짙은 기행문이다. 그 내용은, 지리산 명칭·지세·동반로·삼신묘의 민속·인물·전투·고성·매사냥·산림·절강차 등 다양하다.

삼았으나, 지금의 七佛寺는 작은 암자가 되었다. 이같은 말은 추강록에도 보이고, 진주인도 역시 같은 말을 한다.“77)

라고, 하였다. 音樂에 대한 實心(식산은 궁중악사로부터 거문고를 배움)이 없었으면 七佛寺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주로 산수경을 탄금했을 옥보고를 지극정성으로 모시어 오늘날 그 曲名이라도 남게 한 경덕왕의 성심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七佛寺(雲上院)는 그 모습 속에 그 이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지각하는 주체인 사람의 마음에 實이 있고 없기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않기도 한 것이다. 첨기할 일은, 이 기록의 끝부분으로 보아 근 3백년 전에 유서깊은 七佛寺가 초라한 암자로 버려진 사실을 은연중 개탄했으니, 식산의 實心이 얼마나 독실했든가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梅菊堂記>를 통해 그의 이기론 일단을 엿보기로 한다. 매국당의 주인공은 金夏錫으로 南士(영남 우도) 巨擘이었다. 과거에 여러 번 떨어져, 매국을 벗삼고 초야에 살되 그 집까지 당호를 매국이라 하였다. 식산은 먼저, 꽃·향·식용·古人模倣에서 둘을 사랑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夏錫氏의 사랑함을 가히 알 만하다. 대저, 선달이면 단치고 큰 눈이 내리면 만물이 쓸쓸해진다. 매화 한 점 두 점 비로소 별어 하늘 마음(天心)을 가히 볼 수 있으니, 꽃으로 시작함이 이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또, 商律로 운을 고르듯 가을 바람이 불고 엄한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은 지고 못 풀꽃이 시들 때, 국화 홀로 오만하게 향기를 뽐으니, 꽃으로서 마침이 이보다 뒤인 것은 없다. 시작과 마침은 전체다. 음악을 연주함에 金(鍾)으로 시작하고 玉(磬)으로 마침이 이것이요, 학문을 함에는 誠으로 말미암아 밝(明)아지고 明으로 말미암아 성실해 지는 明誠이 이것이며, 사람이 趨向(향방을 잡고 나아감)함과 出處(나아가고 물러남)함이 이것이다. 어찌, 이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 무릇, 옛날의 하석씨는 곧 지금의 하석씨나 젊었고, 지금의 하석씨는 곧 옛날의 하석씨나 늙었을 뿐이다. 그 당에 거처하며 두 꽃을 벗한 자 죽히 부끄러움이 없을진저. 아, 하석씨는 힘 쓸지어다.“78)

77) 上同書, “山西七佛寺 古名雲上院 新羅眞平王時 沙痕金恭永子玉寶高者 入雲上院 作三十調彈琴 景德間之 齊戒七日 玉寶高至奏琴 傳於樂府 王悅爲設三十七庵 雲上爲主 今七佛爲小庵 見秋江錄 邦人亦云”

78) 『文集』 권17, <記>, <梅菊堂記>, “夏錫氏愛可知爾 夫玄陰閉大雪下 衆物索矣 梅

라고, 하였다. 說理의이나 문학성 높은 가작이다. 용해되어 經典의 출처를 못 느끼게 한 점, 다양한 비유의 적실함, 梅菊을 始終으로 본 기발성이 돋보인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 대로 仁을 향한 도리는 한 줄기로 관철(一以貫之)되어야 함을 경계시킨 글이다. 나아가 이 글은 知覺하기에 따라, 梅菊은 두 꽃(현상)이기에 二인데, 始終(이치)은 전체이기에 一이다. 夏錫은 여전히 夏錫이니 一인데, 小老로 보면 二이다. 이는, 이기론에서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에 一而二(한 이치 속의 다양한 현상)요 二而一의 妙를 그대로 문장 구조에다 응용한 것이다. 우주 만상은 하나의 理致 속에 존재하나, 현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에로의 접근이 선비의 길이였고 수도자의 이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매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국을 계절의 始終에 놓은 天心(理)을 지각하듯이 젊었을 때의 하석씨나 늙었을 때의 하석씨가 하나란 사실을 깨닫(知覺)는다면, 스스로 一貫之道에 얼마나 성실한 마음(實心)을 지녔던가를 늘 반성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 <梅菊堂記>는 경각시켜 준 글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아, 息山이 實心實學을 강조한 뜻이나, 眞理를 추구하는 학자로서 현실적 수난을 감수하면서까지 自家說을 수립하고, 나아가 금기시 되었던 黨色을 초월하여 南冥學派의 중심점이 되는 德川書院 院長職遂行을 5년이나 완수한 것이 다, ‘一而二’가 아닌 ‘二而一’의 妙理에 서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息山의 이기론은 철두철미하게 孔孟學(經書)을 바탕으로 전개하였기에, 고차원적이거나 심오하여 형이하학으로서의 실천유학과 동떨어진 형이상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下學而上達’하는 과정에서 결과된 논리로서, 하학이 곧 상학임을 입증한 철학이라 하겠다. 한 마디로, 息山은 실천유학에 가장 성실한 性理學者였다. 그러기에, 그의 이기철학은 생활의 한 규범으로서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일관되었지,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만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예시한 몇 문학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息山은, “實心이 없으면 實事도 없다

一點兩點始開 天心可見 花而始莫之先也 又如商律調韻 嚴霜時降 木葉脫 群芳萎 菊獨傑傲葩芬 花而終莫之後也 始終者全體也 以樂金玉是也 以學明誠是也 以人而趨向也出處也 亦是也 豈非愛之者存乎 凡昔之夏錫氏 卽今之夏錫氏而少者也 今之夏錫氏 卽昔之夏錫氏而老者也 居其堂而友二物者 足以無愧夫 噫 夏錫氏勉之”

“고, 믿었던 實心實學者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南冥學派 儒林 속에는 결코 가려졌거나 가려서도 아니 될 유학사에 우뚝한 賢哲(實事)이 많음을 안 이상, 힘들며 빼어난 산수진경(實事)을 찾는 이상으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도 않고 남명학과 선비들과의 교류를 튼 것이었다. 실재하는 현철을 보고 못 보는 것 또한 그의 이기론에 의하면, 실심이 있고 없는 데 딸린 것이지, 있는 사실(實事)을 인위적(주로 당쟁의 도구화)으로 없다고 하는 일은 바른 선비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믿었던 까닭에서였다. 한 마디로, 實心을 지닌 知覺者로 선비 본연의 사명감에 충실하려 한 息山의 다양한 행위 자체가 그의 이기철학적 생활이었기에, 그와 만난 남명학과 선비들에게는 자연 영향을 미치었으란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다.

V. 맺는 말

지금껏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息山 李萬敷(1664~1732)는 당대 조선 굴지의 명가에서 태어났으나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벼슬길을 포기하여, 끝내는 ‘處士로 完名하고 吾學의 宗匠’(李瀾撰行狀)으로 추앙된 선비가 되었다. 33세까지는 기호와 남인계 퇴계학과 선비들(주로 星湖의 형인 李潛·李淑 등)과 학문을 닦았고, 34세(1697년)부터는 영남의 남인계 퇴계학파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尙州 魯谷에 살아, 더욱 이들 선비와 교류를 갖게 되었다. 처음부터 息山은 학문을 위한 학문을 추구하여 당색을 초월하여 당시 노론·소론·북인에 관계 없이 학문상에서는 교류하였으며, ‘스승에게도 양보 못할 일’이 있다는 학자적 양심과 공택과 교화를 내림이 선비의 사명이라 여겨 義에 용감했던 탓으로 이것이 도리어 自黨에게나 他黨에게나 배척당하는 험로를 겪어야만 했다. 식산 당대의 학풍은, 실천유학은 홀시되고 성리학이 극성하던 시대요, 성리학조차 主理·主氣派로 분파되어 전국적인 학풍은 타락한데다 학문 자체가 당을 유지하는 도구 내지 당쟁의 무기로까지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서 실천유학의 본거지라 할 만한 남명학 내지 그 학파는 당쟁의 희생물로

거의 괴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식산은 남명학(파)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德川書院의 院長職을 5년 간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수행하였는데, 본고는 이 과정에서 식산이 학문상 남명학과 선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었다.

먼저, 영남 우도 남명학파의 학풍을 쇄신하려 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식산은, 평소 유학의 근본은 洙泗學(孔孟學)에 있다는 확신을 지녔고, 상학으로서의 성리학은 하학으로서의 실천유학에 충실했을 때만 그 성립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런데도 영남의 학풍은 퇴계학과 남명학파가 적대시하는 지경에 이르러, 두 학파 간에는 '知行'의 先後·輕重을 놓고 左道는 知先·行後로, 右道는 行重·知輕으로 치달아 그로 인한 말폐는, 謙下를 미덕으로 여기던 퇴계학과는 끝내 정신이 쇠미해져 진취성이 없는 선비들이 많아지고, 激峻을 중히 여기던 남명학파는 도리어 과격하여 능가하기 좋아하는 선비들이 많아지는 병폐를 낳게 되었다. 이에, 식산은 학문의 단계상 知先·行後와 효용상 行重·知輕을 혼동해서는 학문의 본질을 모르는 일이라고 경계하였으며 당리당락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일삼는 것은 학풍을 괴란시키는 우매한 짓이라고 엄히 경고하였다. 나아가, 식산은 학문에서 知行은 전부(처음과 끝이니까)이지만, 두 일에 다 實心으로 임하려 하는 실학정신이 결여된다면 학문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더욱 강조하였으니, 이것이 식산의 實心實學이었다. 식산이, 영남 좌도 퇴계학과 선비로서 우도의 남명학과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덕천서원 원장이 된 것은, 단순히 두 학파간의 제휴나 결합을 촉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두 학파로 하여금 학문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쇠미해 지는 儒學(儒道)를 扶護하는 데 유자의 사명감이 있음을 일깨우려 함에서였다.

다음은, 식산이 남명학과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한 공적을 들 수 있다. 사기 진작책의 하나로 식산의 德川書院 院長職遂行을 특기할 수 있겠다. 식산 당대만 하여도 한 서원의 원장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의식만은 아니었다. 그 서원에 봉안된 선현의 정신·학문·철학을 숭봉하는 자가 아니면 원장으로의 추대가 불가능했고, 또 당색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은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산이 덕천서원 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는 남명학과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주 요인은 식산이 남명(학)을 존송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식산은 퇴계를 주자 이후 제1인자로 추앙한 선비다. 그러면서도 자기 당의 반대와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덕천서원 원장직을 5년 간이나 수행한 것은 이 또한 학자적 양심·선비적 사명감에서 였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실천유학의 표상이 될 만한 남명학은, 修己治人에 충실한 선비의 바탕을 닦고, 口耳之學의 병폐를 제거하는데 당시로서는 더욱 절실한 학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先賢을 존송한 일이다. 후손이 당파를 지으면 아득히 먼 선조가 절로 당색을 띠게 되던 풍토가 이 땅이었다. 한 점의 사사로움 없이 선비로서 대대로 추앙받던 분도 某黨 某先祖란 이유 하나만으로 폄하시키던 풍조가 지금까지도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다. 이같은, 패배한 당수의 스승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명학 내지 남명학파의 선현들까지 폄하되는 일을 식산은 보고 넘길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명·수우당·강성군(문익점)의 덕을 새삼 드러낸 일과 大覺書院·鼎山(岡)書院에 봉안된 14현의 덕을 천양한 일 등은 특기할 만하다. <關西問答疑疑>는, 晦齋의 아들 잠계가 부친에게서 들은 바 중에서 회재와 남명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세상에 공개 하므로써 생기게 된 것이다. 서로 간의 의견을 공정하게 해명토록 한 것이라고는 하나, <關西問答記>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한 쪽 아들이 썼다는 사실부터에서 疑心을 살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息山은, 아주 엄정한 입장에서 晦冥의 그 어느 쪽에도 정을 앞세운 점은 없다. 그러나, 사실무근한 일이거나, 견해의 차이로 남명이 폄하된 경우는 변증함에도 서슴지 않았으니 이 또한 隱惡揚善하는 선비의 공심으로 大賢이 이유없이 누를 입게 됨을 방지하려 함에서였다 하겠다. 기록자가 소루함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영남의 두 대유 晦冥에게 한 가지로 누를 끼치는 불공함이 될 수도 있다. <讀守愚堂實記>는, 영남 우도 선비들에 의해 제작된 守愚堂 실기를 읽고 그 소루함을 보완한 글이다. 저술보다는 행동에 용감했던 실천유학자 守愚堂 崔永慶은 來菴과 함께 쌍벽을 이룬 만한 남명의 수제자다. 그러나, 당쟁에

참화를 입어 그의 嘉言과 懿行까지도 거의 인멸되다시피 하여 후세인이 표준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식산은 미공개되었던 西厓의 <雲巖錄>에서 억울하게 죽은 증거가 될 만한 일 세 가지를 발췌하고, 또 자신이 직접 상주인에게 들은 바의, 수우당의 貞直한 성품을 더 하였다. 이 또한, 일차적으로는 수우당의 덕행을 한 가지라도 더 후세에 남기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남명사당에 배향될 만한 분임을 言外에다는 무한히 함축시킨 것이니, 위로는 수우당의 덕이 곧 스승 남명의 덕이 되게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記江城君事>는, 江城君 文益漸을 폄하하려는 일부 선비들의 행위를 엄히 배척한 글이다. 요지는, 강성군이 목화씨를 전래한 공은 천추에 크지만, 退溪가 그를 <孝子碑閣記>에서 忠孝大節이 있는 사람으로 공안한 것은 부당하다는 데서 시비가 벌어졌다. 효에 대해 시비를 건 자는 본래 강성군의 효자비가 없었는데 효자비각을 세우고 그 기문을 퇴계가 닦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산은, 효자비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효자였던가 아니었던가가 본질이요, 효자였다는 사실은 史冊에도 실린 것이라고, 현상(末)만 보고 본질(本)을 볼 줄 모르는 소견을 엄히 꾸짖었다. 나아가, 식산은 강성군이 원나라에서 반역자 德興君에게 귀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귀국한 뒤 조선 태조가 불렀으나 끝내 고려의 유민으로 남았으니, 이 사실만으로도 지난 날의 잘못은 속죄될 수 있고 나아가 그 일 자체는 충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퇴계의 깊은 뜻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역시 시비를 건 자의 소견을 나무랐다. 이는, 목숨을 걸고 나랏백성을 염려하여 목화씨를 전래한 은인을 잠시 해를 가린 구름이 끼인 듯한 흠이 있다고 하여 그 해를 닦할 수는 없는 일이란 생각이 식산의 마음이었다. 또, 남명 역시 강성군의 <墓祠記>에서 그를 忠節人으로 칭송한 터라, 식산의 이 글은, 江城君이 폄하됨을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영남 유학의 쌍벽을 이루는 退溪와 南冥 두 大賢에게 누가 미치게 됨을 그 근원부터 막아야 한다는 후학의 성심도 보게 하였다.

위의 南冥·守愚堂·江城君은, 영남 우도의 정신적 지주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외에도 봉안문을 통하여, 大覺書院의 潮溪 柳宗智·撫松 孫天祐·白巖 金大鳴·茅齋 李靜·松亭 河受一과 鼎山(岡)書院의 隅谷 鄭

溫·守軒 姜叔卿·雲水堂 河潤·進士 俞伯溫·陶丘 李濟臣·雲塘 李琰·新溪 河天樹·栢谷 陳克成·凌虛 朴敏 등 14賢의 德化를 천양한 일을 비롯하여, 道淵書院의 二樂堂 周怡의 봉안문, 江陽君 李瑤·玉洞 文益成·松溪 朴以炯 등의 묘비문이 다 선현의 덕화를 불망케 함이요, 이 외에도 文集序나 紀行中の 견문으로, 醉軒 金紐·敬庵 文宗道·尤悶堂 朴緡·寒沙 姜大遂·謙齋 河弘度 등의 高德을 기리었다. 위 분들은 거의가 南冥과는 師友源淵이 닿는 분들로 儒者로서 實踐躬行한 선비들이요 영남 우도 南冥學派 선비들로부터 추앙받는 先賢으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유학사에도 길이 기억될만한 大儒들이었다. 식산은, 이 분들의 덕을 천양함이 곧, 침체된 남명학과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다.

식산은, 실천유학을 중시하여 實心實學을 창도한 학자요, 실천유학과 성리학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이기론을, “만사의 근본이요 학문의 두뇌”라 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기론의 요지는, 만상의 존재물은 理(本質·純善)와 氣(現象有善惡)의 妙合體여서 분리해 논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사람에게는 知覺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의 사물을 지각함에도 天理上(本然·本性)에서나·形氣上(氣質·一身上)에서나에 따라 두 이름이 생길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구하고 싶은 마음은 천리상의 지각이요, 주리면 먹고 싶고·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마음은 형기상의 지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道心과 人心, 四端과 七情 등의 두 이름은 생길 수 있으나, 知覺하는 이치(理)는 하나이기 때문에 誠實·眞實한 마음(實心)을 완비하면 人心도 道心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로, 아무리 절경이라도 자주 보면 식상해지는 것은 형기상의 지각이요, 볼수록 그 자연에 몰입하는 경우는 천리상의 지각이다. 전자는 현상만 보았기에 눈에 익으면 처음 봤을 때의 신기함이 점점 줄게 되고, 후자는 본질(이)과 현상(기)을 동시에 보았기에 갈수록 자연의 오묘한 이치에 감탄하는 것이다. 같은 쇳덩이인데도 磁石을 보관하는 이유는 쇳덩이라서가 아니라, 쇳덩이 속의 음양의 작용을 있게 한 磁力(이치)을 지닌 쇳덩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철학은, 天·地·人에 일관되게 적

용되는 이기론이어서, 남명학과 선비들에게는 수시로 감지되고,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성리철학자이면서 孔孟學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四書에 충실하기를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마디로, 息山이 침체된 南冥學(派)을 興起시키는데 갖은 어려움을 감수 하면서까지 앞장 선 것은, 궁극적으로는 退溪學(性理學)과 南冥學(實踐儒學)을, 儒學上에서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과 선비적 사명감에 따른 것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食산이 남명학에 끼친 학문상 영향은 食산 쪽에서만 아니라, 현장 답사 및 관련 문집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영남 우도 선비들의 食산에 대한 생각까지를 종합해야만 그 성과는 극대되리란 사실이다.